

지방자치·국제

■ 지방선거 핫코너

광주 남구청장 예비후보들 표심잡기 돌입

민주당이 광주 남구청장 예비후보에 대한 면접을 통해 후보를 5명으로 압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각 후보군들이 22일 남구 발전 및 복지정책 등을 등을 내세우며 표심 잡기에 본격 나섰다.

최영호 예비후보는 이날 “송암산업단지가 자동차 점비업종이 67%를 차지하는 등 낮은 생산성으로 단지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지식경제부의 산업단지 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활용, 커뮤니티 공단으로 용도 전환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재훈 예비후보도 이날 “남구 지역의 고유자원을 발굴해 구청 주도로 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키는 기업형 사업체 CB(Community Business) 육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석형 “전남 복지·교육체계 혁신 필요”

이석형 민주당 전남지사 예비후보는 22일 “전남도의 복지 및 교육 지원 체계의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 등에 대한 전남도의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작년 대비 6.1% 증가되었고 16개 광역단체 중 주민 1인당 교육기관 지원금과 사회보장 지원금이 전국 최하위권(15위)을 기록했다”며 ▲보육시설 시간 연장 ▲주민센터 내 건강관리센터 설치 ▲고령자와 농업인 건강프로젝트 운영 ▲장애인 자립지원 확충을 하겠다고 밝혔다.

장원섭 “7세이하 아이들에 아동수당”

장원섭 민주노동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22일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바뀌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7세 이하 모든 아이들에게 단계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공약을 밝혔다.

장 예비후보는 이날 “광주시장이 되면 1단계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0~2세 아동 4만2천431명에게 매달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필요한 1년 예산 509억 원은 선임성 예산 등에 대한 예산 조정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선옥 “민원 부조리·비리 창구 운영”

김선옥 민주당 광주 서구청장 예비후보는 22일 “공무원의 업무 관련 금품수수 등 비리와 부당한 행정행위를 신고하도록 하고, 엄정한 조사와 처벌로 공직자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민원 부조리·공직자 비리 신고창구’를 설치·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비리신고 창구 운영과 관련해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횡령 등 부정행위와 부당한 민원 처리, 직무태만과 이권개입 등 공무원의 품위 손상 행위를 신고 대상”으로 하고 “공직자 비리 등은 자체 조사 및 사법기관과 연계해 조사 및 처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화진 예비후보는 “민주형 시민참여 구성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신뢰행정과 복지행정을 펼쳐겠다”면서 “이를 위해 ▲주민참여 예산 전문가 공동 ▲재정 정보 공개 ▲공무원과 주민이 참여하는 배심원제 인사위원회 구성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진 예비후보는 “어린이 도서관인 ‘희망의 등대’를 마을 단위로 30여 개 설립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호준 예비후보는 “저소득층 무상급식” 발상을 성장하는 학생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면서 “학교급식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방학·휴일에 결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용화 “금호 노사, 회사부터 살려야”

정용화 한나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22일 “금호타이어 1공장과 곡성 1공장이 원재료 부족으로 가동이 중단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이날 “청와대 비서관 재임시절 금호타이어에 3천800억 원의 긴급 신규자금 지원을 하도록 하고, 원재료 구입을 위한 3천만 달러의 신용장 개설까지 할 수 있게 해줬지만, 노사간의 합의가 되지 않아 준비된 자금이 투입되지 못하고 신용장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노사 모두 회사부터 살리는 방향으로 협상을 해 신용장을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강식 “불법 부추기는 후보 사퇴해야”

김강식 민주당 여수시장 예비후보는 22일 “부패·불법선거 부추기는 시장 후보들은 사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여수시장 후보가 향응·식사를 제공한 협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 관광버스 제공 등 불법 훈탁선거가 판을 치고 있다”면서 “이는 여수시민을 우롱하고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민주당의 해당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부패·불법 선거를 부추기는 여수시장 예비후보는 대 시민 사과와 함께 책임을 지고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홍재 “광주 동구청장 경선 불참”

임홍재 민주당 광주 동구청장 예비후보는 22일 “민주당 동구청장 경선 방식을 수용할 수 없다”며 경선 불참을 선언했다. 임 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청장이 12년 가까이 동구청원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원 선거인단을 500명으로 정한 것은 현 청장을 위한 특혜”라고 주장하고 “이 때문에 그동안 수차례 박주선 최고위원과 김동철 광주시당 위원장과 공심위에 당원 수를 최소한 1천 명으로 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묵살돼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운태 “배심원제 패널·사회 지역인사로”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22일 “광주 시장 경선방법인 시민공천배심원제에 참여하는 패널과 사회자는 광주 지역 인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시민배심원제는 사회자 1명과 패널 3명으로 구성돼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패널을 굳이 서울 지역 인사로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서 “광주시장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인 만큼 광주 지역 인사가 패널과 사회자를 맡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 같은 의견을 중앙당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김대식 “호남고속철 무안공항 경유해야”

김대식 한나라당 전남도지사 예비후보는 22일 “호남고속철도는 목포권을 비롯한 남해안 관광수요 증가, 영암·해남 등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무안기압도시 건설에 따른 교통 수요 등에 대비해 조기에 완공돼야 한다”면서 “특히 무안공항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호남고속철이 현재의 경제적 타당성보다는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확보를 고려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무안국제공항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청와대와 국토해양부, 지자 철진한 국회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홍영기 “대형마트 신규 입점 규제 강화”

홍영기 민주당 목포시장 예비후보는 22일 “대형 할인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신규 입점을 제한하고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적으로 대형마트와 SSM의 무분별한 점포 수 늘리기가 재래시장의 매출 감소와 지역 경제의 붕괴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신규 점포 개설하신 조건을 강화하고 영업시간 및 영업품목 등을 제한하는 것과 아울러 개점 전에 지역 상인들과 사전 협의를 필수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병춘 26일 시의원 선거사무소 개소

임병춘 민주당 동구 제1선거구(산수·계립·동명·총장동) 광주시의원 예비후보는 오는 26일 오후 5시30분 동구 동명동 계립 오거리 광주은행 365 코너 2층에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한다. 이날 개소식에는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 및 광주시장, 동구청장, 지방의원 예비후보 등 당직자와 지지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임 예비후보는 “이번 개소식에서는 참석 예비후보자와 함께 도심 공동화 대책을 위한 도심 활성화 방안 등의 정책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부통령이 21일 밤(현지시각) 하원의 건강보험 개혁법안 가결 후 성명을 발표하기 위해 백악관 이스트룸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미 건보개혁안 의회 통과

사회보장 개혁 100년만에…오바마 “미국민의 승리”

미국의 건강보험 제도를 40여년 만에 대대적으로 수술하는 역사적 건보 개혁법안이 21일 밤(이하 현지시각) 연방 하원에서 가결됐다.

하원은 지난해 12월 상원에서 통과된 건보개혁 법안을 원안대로 표결에 부쳐 찬성 219, 반대 212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미국에서 전 국민을 수혜대상으로 삼는 보편적 건강보험 제도 도입이 논의되자 시작한 지 거의 100년 만에 보편적 건보 제도에 가장 깊게 다가서는 획기적인 개혁이 이뤄지게 됐다.

이날 표결에서는 재적 431명(정원 435명, 현재 4명 공석)의 하원의원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의원 219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은 소속 의원 178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 소속 의원 가운데 34명은 당론과 달리 반대표를 행사했다.

작년 12월 상원을 통과한 건보개혁 법안

이 이날 하원에서 통과됨에 따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정치적 명운을 걸고 추진해온 건보개혁은 입법화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하원의 법안 통과 직후 “미국민의 승리이며 상식의 승리”라면서 “이 법안이 건보시스템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2일 하원이 가결한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며, 이로써 건보개혁은 발효된다.

한편 하원의 민주당 지도부는 가결된 법안에 일부 내용을 보완하는 수정안도 표결에 부쳐 찬성 220, 반대 211로 통과시켰다.

이 수정안은 상원에 넘겨져 23일 심의·표결 과정을 거칠 예정인데, 상원에서도 수정안이 채택되면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추진한 건보개혁을 위한 입법작업은 완전히 마무리된다.

/연합뉴스

‘공무원 맞춤형 시간제’ 근무 첫 발

여수 등 20개기관 내달 시범실시

하는 전일제근무와 달리, 본인의 필요에 따라 주당 15~35시간 근무하고 그 시간에 비례해 보수를 받는 제도다.

출산·육아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맞벌이 공무원과 여가활동 등에 관심이 많은 신세대 공무원들의 요구를 반영해 인력 운용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자 마련한 제도다.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는 시간제 근무 시범 시행을 위해 23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여수시, 부산시, 경기도 등 20개 행정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이들 기관에서 4월부터 9월까지 시간제근무를 운영해 성과가 좋으면 연말께 전 부처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간제근무란 주당 40시간 이상 일해야

/김자경 기자 dok2000@kwangju.co.kr

한국은행은 2010년 3월 23일 화요일에 광주일보에 실린 정치/정치부 기사입니다. 주제는 '광주 남구청장 예비후보들 표심잡기 돌입'입니다. 내용은 광주 남구청장 예비후보 5명이 각각 자신의 정책과 청탁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예비후보들은 주로 복지·교육·환경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010년 3월 23일 화요일에 광주일보에 실린 정치/정치부 기사입니다. 주제는 '미 건보개혁안 의회 통과'입니다. 내용은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법안이 하원과 상원을 통과함으로써 실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이는 미국에서 100년 만에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으로,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2010년 3월 23일 화요일에 광주일보에 실린 정치/정치부 기사입니다. 주제는 '‘공무원 맞춤형 시간제’ 근무 첫 발’입니다. 내용은 전일제근무와 달리, 본인의 필요에 따라 주당 15~35시간 근무하고 그 시간에 비례해 보수를 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출산·육아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맞벌이 공무원과 여가활동 등에 관심이 많은 신세대 공무원들의 요구를 반영한 제도로,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가 20개 기관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합니다.